



차이나

CHINA Market Report

마켓 리포트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3

이메일 : beijingk@kita.net

최근 중국-아프리카 무역·투자 동향

목차

1. 대아프리카 무역 동향
2. 대아프리카 투자 동향
3. 시사점

요약

- 2021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상품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543억 달러 (비중 4.2%)로 2014년 이후 최고치 기록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국의 대아프리카 1위 무역 파트너이며 양국 간 무역액은 약 541억 달러로 중국-아프리카 무역 총액의 약 5분의 1을 차지. 이어서 나이지리아(약 256억 달러), 앙골라(약 233억 달러), 이집트(약 199억 달러), 콩고민주공화국(DRC)(약 143억 달러) 순이며 상위 5개 국가와의 무역액이 중국 대아프리카 전체 무역액의 54.1%를 차지
- 중국의 대아프리카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전자제품, 일용품, 방직제품 등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지역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 귀금속, 농산물 등임
- 중국은 주요 아프리카 투자국가로 매년 아프리카의 교통 인프라 및 광산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음. 2020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직접투자(FDI) 금액은 42억 달러로 2003년 대비 56배 증가하였고, 누적액은 434억 달러를 초과
- 과거에는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 방식으로 대아프리카의 대출을 확대했으나 일각에서는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 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견해도 많아지면서,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수출 촉진 및 유동성 공급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1. 대아프리카 무역 동향

-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아프리카 상품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543억 달러(비중 4.2%)로 2014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수출액) 2021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액은 1,484억 달러(비중 4.4%)로 전년 대비 29.9% 증가
 - (수입액) 2021년 중국의 아프리카 수입액은 1,059억 달러(비중 3.9%)로 전년 대비 43.7% 증가
- (주요 수출입 국가) 2021년 중국의 상위 5개 아프리카 수출국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가나, 케냐이며 對나이지리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7% 증가한 226억 달러, 對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6% 증가한 211억 달러 기록
 - 2021년 중국의 상위 5개 아프리카 수입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DRC), 콩고, 잠비아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58.6% 증가한 330억 달러, 앙골라로부터의 수입액은 40.5% 증가한 206억 달러 기록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중국의 대아프리카 제1의 무역파트너이며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양국 간 무역액은 약 541억 달러로 중국-아프리카 무역 총액의 약 5분의 1을 차지
 - 이어서 나이지리아(약 256억 달러), 앙골라(약 233억 달러), 이집트(약 199억 달러), 콩고민주공화국(DRC)(약 143억 달러) 순이며 상위 5개 국가와의 무역액이 중국의 대아프리카 전체 무역액의 54.1%를 차지

2021년 중국의 TOP10 아프리카 수출입 대상국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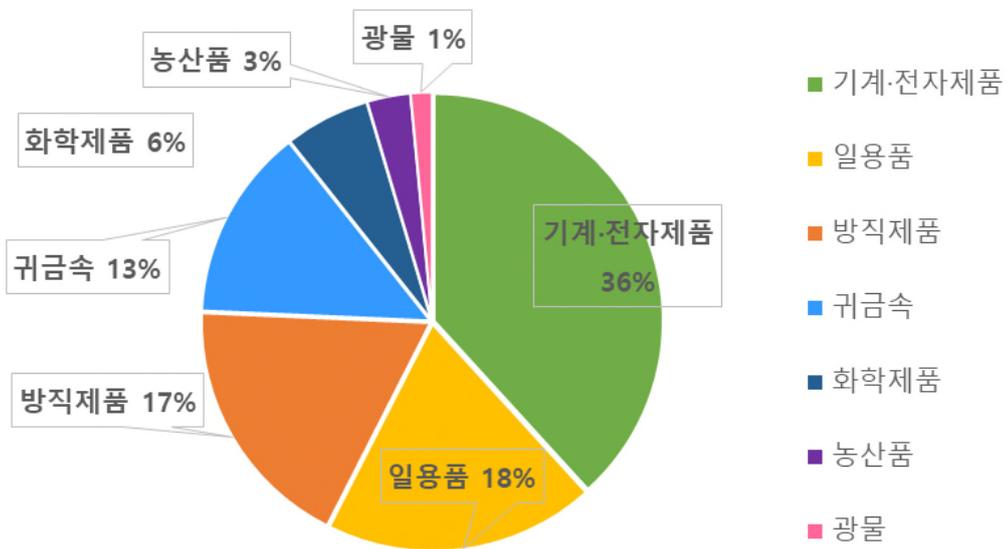
순위	수출			수입		
	국가별	금액	증감률	국가별	금액	증감률
1	나이지리아	226	34.7	남아프리카공화국	330	58.6
2	남아프리카공화국	211	38.6	앙골라	206	40.5
3	이집트	183	34.1	콩고민주공화국(DRC)	116	58.2
4	가나	81	19.9	콩고	47	38.2
5	케냐	67	24.6	잠비아	43	16.3
6	탄자니아	61	47.1	리비아	32	297.4
7	알제리	60	7.9	나이지리아	30	22.6
8	모로코	57	36	기니	28	14.8
9	라이베리아	57	67.1	가봉	26	△20.8
10	세네갈	34	30.8	모리타니	18	40.6
	수출총액	1,484	29.9	수입총액	1,059	43.7

출처 : 한국무역협회

주 : 콩고민주공화국(DRC, 수도 킌사사)과 콩고(수도 브리자빌)는 별개의 국가임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아프리카 지역 경제가 호전된 것은 외부 환경 개선요인,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고, 글로벌 물가 상승도 아프리카 무역 성장에 일정한 동력이 되었다고 밝힘
- 2021년 11월 개최된 제8차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아프리카 농산물 수출판매 절차 간소화를 위한 ‘녹색통로’를 구축하기로 양측이 합의
 - 중국은 아프리카 제로 관세 대우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3,000억 달러의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 화웨이, 차이나 모바일, 상윈그룹(行云集团) 등의 중국 통신장비 기업과 협력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고 판매 채널 접근성을 높이며 공급 지연, 물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
 - 케냐는 2022년 중국 시장에서 차, 커피, 견과류, 아보카도 등 농산물 판매 확대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주요 수출품목) 2020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전자제품(비중36%, 409.4억 달러), 일용품(18%, 205.1억 달러), 방직제품(17%, 195.1억 달러), 귀금속(13%, 146.4억 달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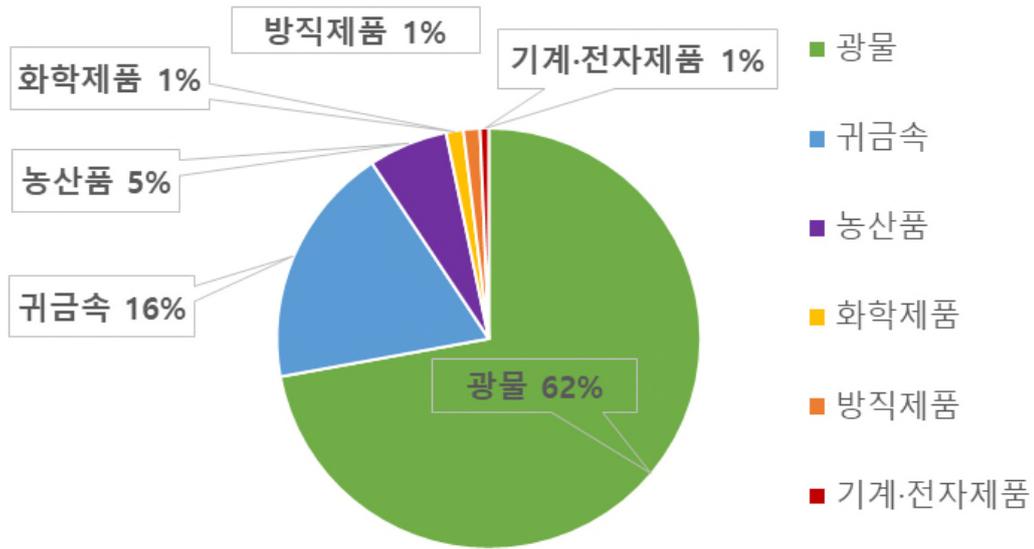
2020년 주요 품목별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출 비중



출처 : 중국-아프리카 무역관계 보고서(2021)

- (주요 수입품목) 2020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비중 62%, 449.8억 달러), 귀금속(16%, 116억 달러), 농산품(5%, 37.8억 달러), 화학제품(1%, 8.2억 달러)임
- 베이커&맥켄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아프리카 33개 저소득 국가의 97% 상품을 무관세 대우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농산물이고 향후 농산물 무역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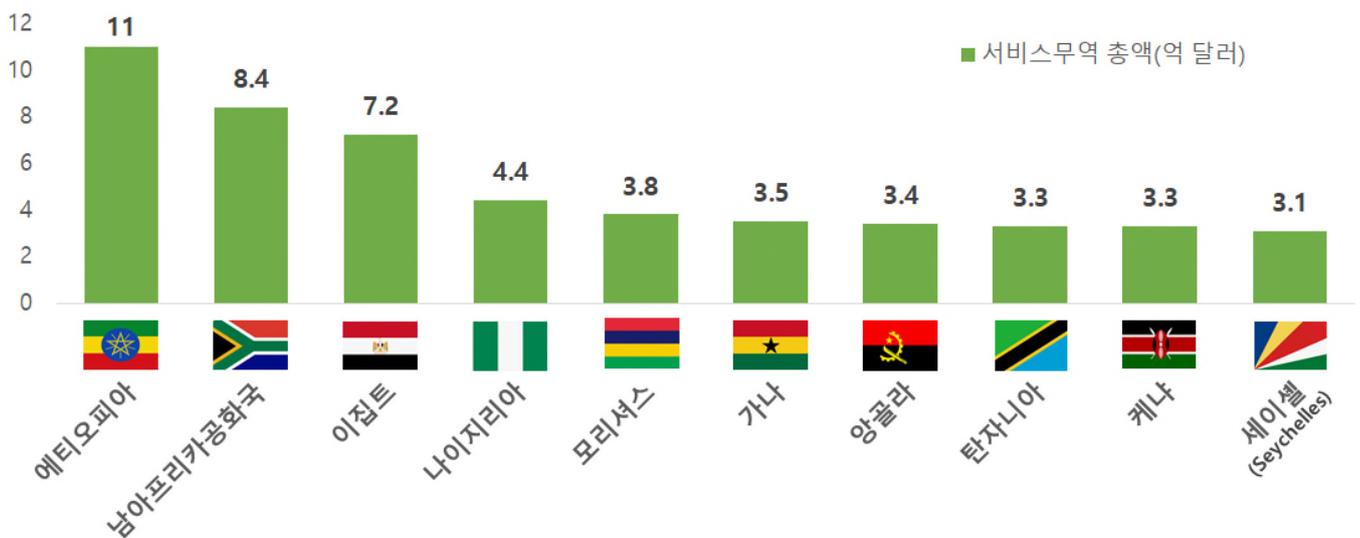
2020년 주요 품목별 중국의 대아프리카 수입 비중



출처 : 중국-아프리카 무역관계 보고서(2021)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중국의 아프리카 서비스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8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서비스무역 분야는 건축(비중 37%, 32억 달러), 운송(22%, 19.2억 달러), 여행(8%, 6.8억 달러)임
- 중국의 상위 10개 아프리카 서비스무역 대상국은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모리셔스, 가나, 앙골라, 탄자니아, 케냐, 세이셸이며 10개국 서비스무역 총액은 약 51억 5천만 달러로 중국-아프리카 서비스무역 총액의 59.4% 비중을 차지함

2020년 중국의 TOP10 아프리카 서비스무역 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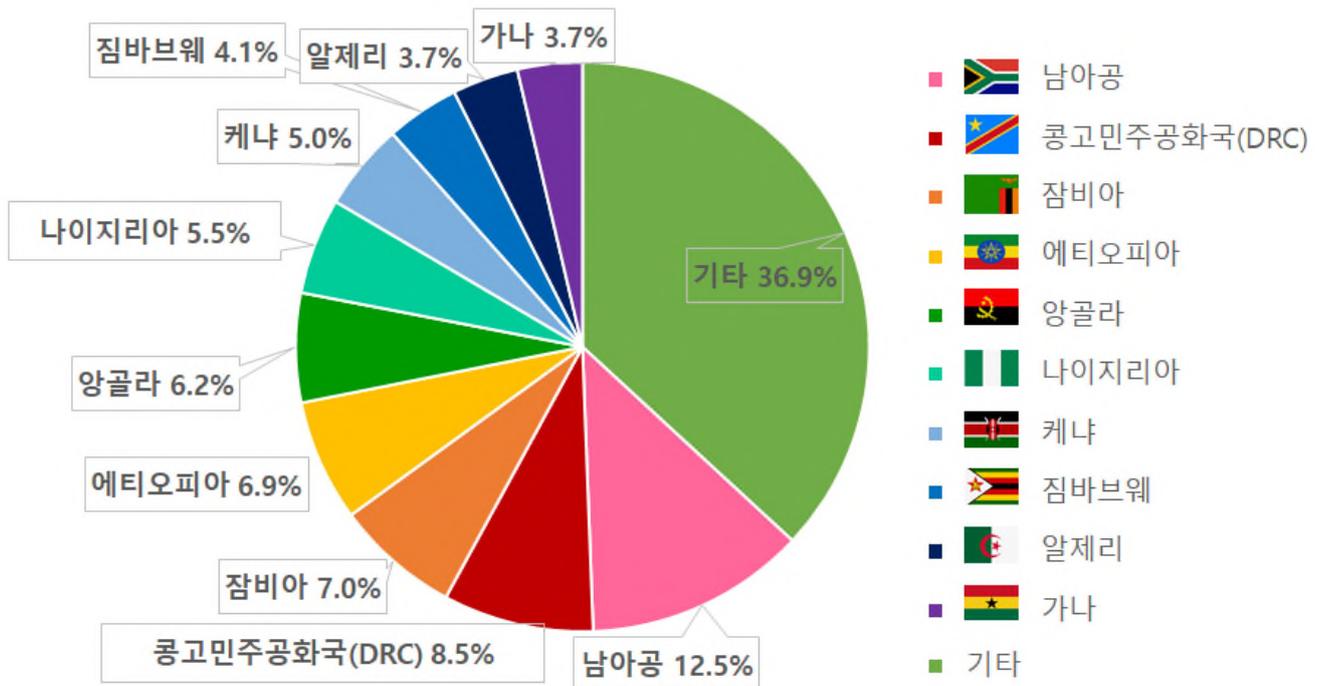


출처 : 智研咨询

2. 대아프리카 투자 동향

- 중국은 주요 아프리카 투자국가로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의 대아프리카 직접투자액(FDI)은 42억 달러로 2003년 대비 56배 증가하였고, 2020년까지의 누적액은 434억 달러 초과. 2021년 1~9월까지 투자액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25.9억 달러 기록
- 중국 주요 아프리카 투자 대상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비중 12.5%), 콩고민주공화국(DRC)(8.5%), 잠비아(7.0%), 에티오피아(6.9%), 앙골라(6.2%)등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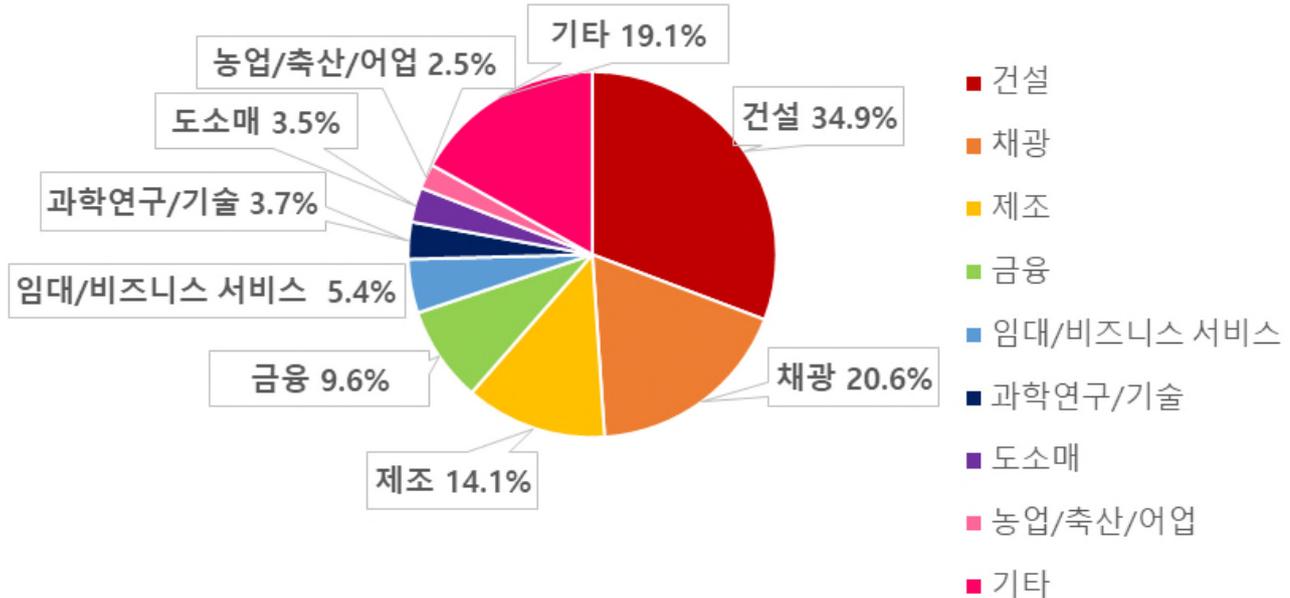
국가별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비중



출처 : 중국-아프리카 무역 관계 보고서(2021)

- 2020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 통계 보고서(2021)에 따르면, 산업별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은 건설업이 34.9% (누적 투자액 152억 달러)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채광업 20.6% (누적 투자액 89억 달러), 제조업 14.1% (누적 투자액 61억 달러) 비중을 차지함

산업별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비중



출처 : 2020년도 중국 대외직접투자 통계 보고서(2021)

- 중국 상무부는 2010년 이후 아프리카 전력 인프라의 3분의 1을 중국 국영기업이 투자·건설하였고 아프리카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주요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힘
- 중국의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중국 민영기업들은 노동집약 중심의 생산라인을 아프리카로 이전하고 아프리카 현지 생산을 강화하는 추세임
- 중국이 아프리카 진출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하는 주요 이유는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아프리카에서 친(親)중국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2021년 11월 아프리카 여론조사기관 Afrobaromete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민의 63%가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미국(60%), 유엔 기관(57%), 과거 식민지 강국(46%)보다 높은 수치임
-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따라 주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왔으나, 아프리카 국가의 중국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채함정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됨
-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최근 금융 이외의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보건 건강 및 환경 보호, 기술이전, 교육 등 여러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하는 중
- 2021년 11월, 중국 정부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중국-아프리카 협력비전 2035'(China-Africa Cooperation Vision 2035)계획의 일환으로 9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공동 시행하겠다고 발표

- 9개 세부 분야는 각각 보건 건강, 빈곤 완화 및 농업발전, 무역 증진, 투자 진흥, 디지털 이노베이션, 녹색 발전, 역량배양, 인문 교류, 평화 안보임

중국-아프리카 국가 9개 분야 공동 프로젝트

	분야	주요 내용
1	보건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10억 회분 추가 지원 (6억 회분 무상지원, 4억 회분 중국-아프리카 공동 생산 방식 제공) ▶ 10개 의료·보건 프로젝트 시행, 1,500명 의료 인력 파견
2	빈곤 완화 및 농업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빈곤완화 및 농업 프로젝트 시행, 농업전문가 500명 파견 ▶ 중국에 중국-아프리카 현대농업기술교류시범 및 훈련연합센터 설립
3	무역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위해 '녹색통로'를 개설, 향후 3년간 아프리카로부터 약 3,000억 달러 가량의 농산물 수입 계획 ▶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건설 지속 지원 ▶ 중국에 중국-아프리카 경제무역 심화협력 선행구, 중국-아프리카 협력 산업단지 건설
4	투자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3년간 중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추진 ▶ '중국-아프리카 민간투자증진 플랫폼' 설립 계획 ▶ 10개의 산업화 및 취업증진 프로젝트 시행, 아프리카 금융기관에 100억 달러의 신용한도 제공, 중국-아프리카 크로스보더 위안화 센터 설립 ▶ 아프리카 최빈국의 2021년 연말 만기 미상환 정부 간 무이자 대출금 채무 면제
5	디지털 이노베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의 디지털 경제 프로젝트 시행, 중국-아프리카 위성원격탐사응용협력센터 건설 ▶ 중국-아프리카 발전 지원 실험실, 파트너 연구소, 과학기술 혁신협력기지 건설 지원 ▶ '실크로드 전자상거래'(Silk Road e-commerce) 협력 확대 ▶ 아프리카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 페스티벌 및 관광 전자상거래 판촉행사 계획 ▶ 아프리카 '100개 스토어, 1000개 제품 플랫폼' 시행
6	녹색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의 녹색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시행 ▶ '녹색 만리장성'(Great Green Wall) 건설 지원 계획 ▶ 아프리카에 저탄소 시범구 및 기후변화 대응 시범구 건설
7	역량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가 학교 10개 신축 또는 업그레이드 지원 ▶ 아프리카 고급 인재 1만 명을 연수나 연구·토론 활동에 초청 ▶ '미래 아프리카-중국 아프리카 직업교육 협력 프로젝트' 시행 ▶ 아프리카 유학생 취업 지원 ▶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 현지에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제공하도록 독려
8	인문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아프리카 영화제, 아프리카에서 중국 영화제 개최 계획 ▶ 중국-아프리카 청년 서비스 포럼 및 중국-아프리카 여성 포럼 개최 계획
9	평화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의 평화 안보 분야 프로젝트 시행 ▶ 아프리카연합(AU) 군사원조 계속 이행 ▶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주적인 지역 안보 수호 및 반테러 노력 지지 ▶ 중국-아프리카 평화유지군 합동훈련, 현장교육, 소형화기·경량무기 관리통제 협력 전개

출처 : 인민망 한국어판

① 제조 및 건설 투자

-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가운데 제조 및 건설 부문 투자 비중은 약 42%를 차지하며, 중국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대대적인 투자를 지속함
- 최근 중국 기업은 태양광 발전소 및 폐기물 처리공장 건설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 2020년, 중국 건설 기계 기업 줌라이온(Zoomlion)은 가나 북부에 두 개의 폐기물 처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약 1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
 - 중국 전력공사는 잠비아 전력공사와 협력하여 잠비아에 3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총 5억 4,800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이 프로젝트에 따른 발전용량은 200MW임
- 아프리카의 급증하는 건설 프로젝트 수요에 발맞추어 현지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세라믹 소재 생산 공장 건설을 지속 확대
 - 2020년, 광저우 센다국제무역공사(SENDA)는 세라믹 타일 공장 건설을 위해 세네갈, 모잠비크, 카메룬, 잠비아, 콩고 각국에 총 3억 2,300만 달러를 투자함
 - 2020년, KEDA 청정에너지 기업은 세네갈에 세라믹 타일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억 3,390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이 프로젝트에 따른 일 평균 타일 생산량은 55,000㎡임
- 2021년 10월,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은 서아프리카 니제르(Niger)와 베냉(Bénin)에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2차 개발사업을 위해 1억 8,300만 달러를 재투자함
 - 2019년 9월,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1차 개발사업으로 니제르의 아캄(Archam: 니제르 국경 인근도시)에서 베냉의 코토누(Cotonou: 베냉의 최대 도시) 항구까지 1,550km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착공한 바 있음
 - 이번 투자로 원유 생산 능력은 4,000만 배럴 이상에 달할 것이며, 일 평균 9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예정
- 2022년 3월, 중국 국영 대형차 제조업체인 시노트럭(Sinotruck)은 2,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탄자니아에 트럭 조립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CKD(Complete Knock Down)방식으로 생산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탄자니아 내 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자니아 물류 및 운송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현지에서는 기대

최근 중국-아프리카 제조 및 건설 투자 현황

단위: 달러

기업명	투자연도	주요 내용	투자금액 (달러)	투자 대상 국가
줌라이온 (Zoomlion)	2020	폐기물 처리공장 2개 건설	1억	가나 북부
중국 전력공사	2020	태양광 발전소 3개 건설, 발전용량 200MW확보	5억 4,800만	잠비아
광저우 센다국제무역공사 (SENDA)	2020	세라믹 타일 공장 건설	3억 2,300만 (각국)	세네갈, 모잠비크, 카메룬, 잠비아, 콩고
KEDA 청정에너지	2020	세라믹 타일 공장 건설, 일 평균 생산량 55,000㎡ 타일 확보	1억 3,390만	세네갈
중국석유 천연가스공사 (CNPC)	2021	1,950km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 (2019년 9월 착공) 원유 생산량 4,000만 배럴 이상, 일 평균 9만 배럴 원유 수송 예정	1억 8,300만	니제르, 베냉
중국 국영기업 시노트럭 (Sinotruck)	2022	완성차 공장 건설 탄자니아 내 500개 일자리 창출	2,000만	탄자니아

출처 : JETRO, chicomnews

② 교통 인프라 투자

- 중국의 대아프리카 전체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 중 약 30%는 기차역, 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 투자이며 확보한 광물 등 자원의 운송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중임
- 중국 은행이 아프리카 국가의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인프라 건설과 운영은 중국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 2014년, 동아프리카 철도네트워크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은 케냐에 38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중국 교통건설공사(CCCG)가 표준 게이지 철도(Standard Gauge Railway : 두 레일의 간격인 궤간이 1435mm(4ft 8½in)인 철도선로) 건설을 담당함
-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와 항구 도시 몸바사(Mombasa: 케냐 제2의 도시)를 연결하는 약 609km의 표준 게이지 철도(SGR)는 2019년 11월에 개통되었고 12월부터 화물 운송을 시작했으나 기대했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짐
- 현재 케냐 북동부의 나이바샤(Naivasha)로 확장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Kampala)로 확장하고 이후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 인접 국가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임
- 이를 통해 내륙 주변국과의 교역 확대, 국제 무역 활성화, 케냐 경제 부양, 물류비용 절감 기여, 약 26,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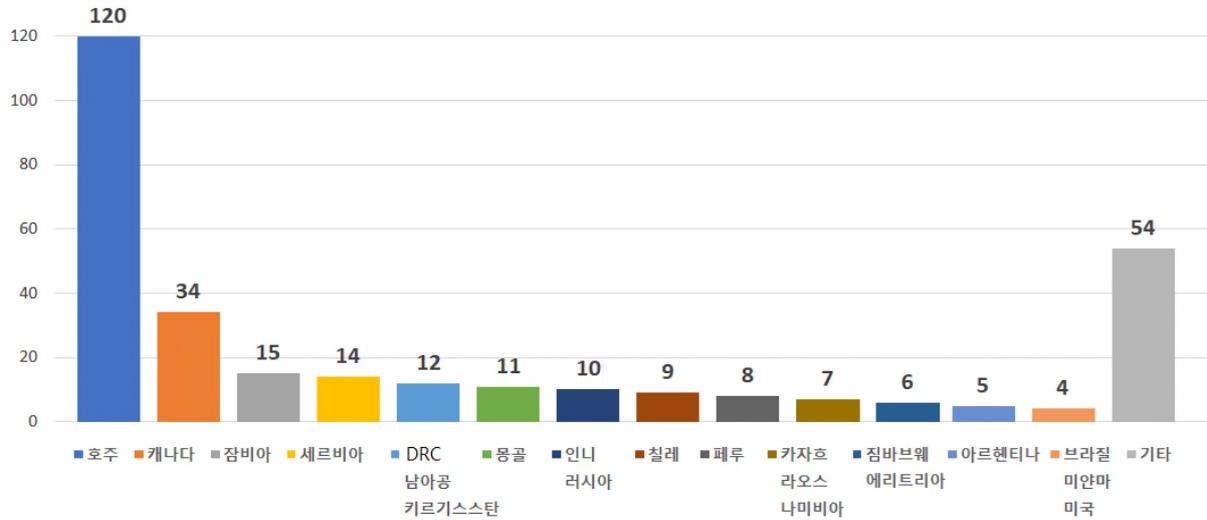
③ 광업 개발 투자

- 최근 중국의 아프리카 주요 광업 투자 분야는 석유에서 광물로 이전하는 추세이며 중국은 아프리카에 매장된 구리, 코발트, 희귀 광물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중국은 스마트폰·노트북·전기차 등의 배터리 원료인 코발트의 최대 생산지인 콩고민주공화국(DRC)의 동부 및 남동부 광산 투자를 확대
- 중국은 호주로부터 중국 전체 철광석 수입의 약 60%를 의존하고 있었으나 호주와의 무역 갈등 심화 이후 새로운 철광석 수입지를 발굴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세계최대 규모의 미개발 철광석 지대 중 하나인 기니 남동부 시만두(Simandou: 86억 톤 규모의 철광석 매장지로 채굴시 연간 1억에서 최대 2억 톤의 철광석 공급 가능)광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지난 2019년 11월 중국 주도 컨소시엄¹⁾이 시만두 북부지역 1,2 철광석 광구 개발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 중국 국유자산감독위원회(中国资产监督管理委员会, SASAC) 허가를 거쳐 기니 정부의 개발승인을 받은 바 있음
 - 시만두 철광석 광산 남부의 3,4 광구 지분은 리오 틴토(Rio Tinto: 세계 5대 철광석 채굴업체인 다국적 광산기업)가 40%, 중국 알루미늄공사(中国铝业, Chinalco)가 45%, 기니 정부가 15%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바오강그룹(中国宝武钢铁集团有限公司, Baowu)은 3,4광구 Chinalco의 지분 39%를 150억 달러에 인수 할 계획이라고 발표
 - 다만 2022년 3월 기니 과도정부(군부 쿠데타로 수립된 정부)는 광산 국익 보존 등을 이유로 시만두 철광석 광산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 현지 중국 기업의 난관이 예상됨
-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코발트 확보를 위한 중국의 투자 또한 잇따르고 있음
 - 2020년 12월, 차이나몰리브덴(洛阳栾川钼业 : 세계 2위 코발트 생산 기업)은 경영난에 시달리던 미국 프리포트-맥모란(Freeport-McMoRan)으로부터 콩고민주공화국(DRC)의 텐케 풍구루메(Tenke Fungurume) 및 키산푸(Kisanfu) 구리·코발트 광산개발 프로젝트 95%의 지분을 5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발표
 - 2021년 중국 국경 광산업체인 완바오광업(萬寶礦業, Wanbao Mining Ltd.)은 모로코의 광업회사 마나젼(Managem : 세계 5대 코발트 양극재 생산업체)이 보유한 수단(Sudan) 가부가바(Gabgaba) 금 광산 확장 프로젝트 지분 35%를 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 중국이 해외에 투자한 광산 프로젝트는 2019년 초 기준 총 371건이며, 이 중 65% 이상이 아시아·태평양(179건) 및 아프리카(70건)에 집중됨
 - 국가별로는 호주(120건), 캐나다(34건), 잠비아(15건), 콩고민주공화국(DRC)(12건), 키르기스스탄(12건), 남아프리카공화국(12건), 몽골(11건) 등의 국가에 대한 투자건수가 전체의 60% 이상임

1) 중국 홍차오 그룹(中国宏桥集团有限公司: 중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 옌타이항만그룹(烟台港集团), SMB(Société Minière de Boké: 기니 최대 보크사이트 수출업체), 싱가포르 워닝 인터내셔널 그룹(Winning)

중국 기업의 해외 광산 프로젝트 국가별 분포

단위: 건
(2019년 초 기준)



출처 :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 2021년 체결된 에너지·광업 분야 10대 상위 M&A 중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투자가 4건이며, 최근 급등하는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가격으로 인해 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2021년 중국의 10대 해외 광산·에너지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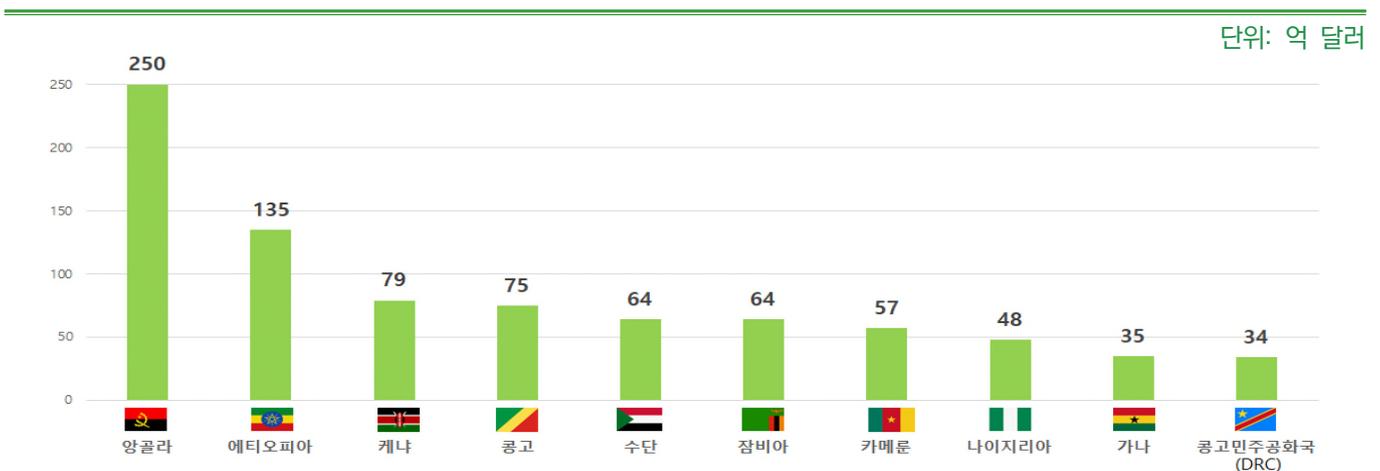
순위	중국기업	대상기업	자원	자원소재지	투자규모
1	쯔진광업 (紫金矿业)	Neo Lithium Corp.	리튬염호	아르헨티나	9.6억 캐나다달러
2	중광커광업 (中广核矿业)	오르타렉(奥尔塔雷克) 유한공사	우라늄광	카자흐스탄	4.35억 달러
3	신차오에너지 (新潮能源)	Grenadier Energy Partners II, LLC	세일오일·가스	미국	4.197억 달러
4	화유코발트 (华友钴业)	Prospect Lithium Zimbabwe(Pvt) Ltd	리튬광	짐바브웨	4.22억 달러
5	중국일중 (中国一重)	중핀성더(中品圣德)	니켈가공	인도네시아	23.92억 위안
6	초핑골드 (赤峰黄金)	Golden Star Resources Limited	금광	가나	2.91억 달러
7	간펑리튬 (赣锋锂业)	Bacanora Lichium plc	리튬점토	멕시코	1.9억 파운드
8	쑤저우텐화시대 (苏州天华时代)	AVZ Minerals limited	니켈광	콩고	2.4억 달러
9	위룡주식 (玉龙股份)	NQM Gold 2 pty ltd	금광	호주	9.13억 위안
10	다오스 테크놀로지 (道氏技术)	MINERAL METAL TECHNOLOGY SAR	비철금속광	콩고	4억 위안

출처 : 천샤오(晨哨)DB

3. 시사점

- 중국은 인프라 투자 건설 방식으로 대(對)아프리카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아프리카 국가의 대중국 채무 증가를 우려하는 견해도 많이 있음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²⁾국가 및 전통적인 대출기관들은 대아프리카 재정 지원의 절반(55%) 이상이 보건, 교육, 비즈니스, 은행 등 사회 부문에 집중된 반면 중국은 65% 이상이 광업, 건설, 에너지, 통신, 운송 등 인프라 부문에 집중됨
 -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여 국가 기반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그 대가로 자원개발권을 얻거나 석유, 광물 등 원자재를 직접 받는 방식은 중국의 대표적 인프라 투자 건설 방식 중 하나임
-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 최대 채권국으로 아프리카 전체 채무의 약 5분의 1 비중을 차지함
 - 중국의 주요 대출대상국은 앙골라, 카메룬, 지부티(Djibouti), 에티오피아, 콩고 공화국, 케냐, 잠비아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의 중국에 대한 부채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참여국 중 26개국은 중국에 대한 부채가 GDP의 5%를 초과, 14개국은 GDP의 10%를 초과하였고, 지부티 국가 부채는 GDP의 39%에 도달함
 - 2021년 기준 중국에 대한 부채가 높은 상위 10개 아프리카 국가는 앙골라(약 250억 달러), 에티오피아, 케냐, 콩고, 수단, 잠비아, 카메룬, 나이지리아, 가나, 콩고민주공화국(DRC)임
 - 중국 중기 대출 평균 금리는 약 3.5%로 IMF 0.6%, 세계은행 1% 수준보다 높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중국 채무액 및 이자 상환 부담이 큰 실정임

2021년 대중국 부채 상위 아프리카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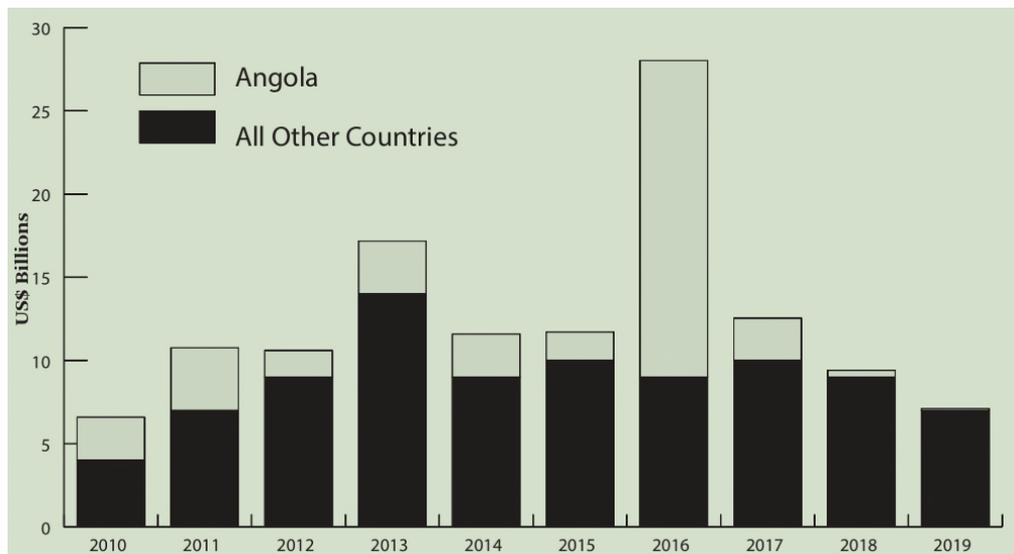
출처 : ghanaweb, opera news

2)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위해 결성된 OECD 산하 기구로, 구성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핀란드, 아일랜드의 18개국과 EC위원회

- 한편 중국은 2020년 말, 아프리카 16개 국가와 채무상환 유예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상환 기간 연장 등 채무 재조정을 통해 아프리카 채무국의 채무액 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힘
- 또한, 중국은 ‘부채함정 외교’라는 언론 표현을 비판하며, 채무국의 부채와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투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일관되게 수행해 왔고, 채무국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시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고 강조
- 최근까지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 여러 분야의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으나 일대일로 투자 및 금융 대출방면에서는 과거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미국 존스홉스킨스대 중국·아프리카 연구소(SAIS-CARI)에 따르면, 중국의 대아프리카 대출액은 2016년 295억 달러(약 36조 3천억 원)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 79억 달러(약 9조 7천억 원)로 감소
- 과거에는 중국 은행들이 대규모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중국 은행들도 프로젝트에 따라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에너지 분야 중심의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점차 수출 촉진 및 유동성 공급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

2010~2019년 중국의 대아프리카 대출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출처 : SAIS-CARI

참 고 자 료

1. JETRO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22/00a9cda60835179c.html>)
2. ghanaweb (<https://www.ghanaweb.com>)
3. chicomnews (<https://chicomnews.org>)
4. lakesidefcu(<https://lakesidefcu.org>)
5. EUROMONEY(<https://www.euromoney.com>)
6. 中国信息网 (http://www.zgxxb.com.cn/pad/content/202202/09/content_11187.html)
7. 新华社 (<https://baijiahao.baidu.com/s?id=1723198253367348528&wfr=spider&for=pc>)
8. 见道网 (<https://www.seetao.com/details/128216.html>)
9. 中国与非洲经贸关系报告2021 (http://www.logclub.com/front/lc_report/get_report_info/623)
10. OperaNews(<https://ke.opera.news/ke/en/economy-finance/bf3a369ffe090e533575e8bebe1a853f>)
11. carnegie(<https://carnegieendowment.org>)
12. AIDDATA (<https://www.aiddata.org/publications/how-china-lends>)
13. YNA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7126200074>)
14. 智研咨询 (https://www.sohu.com/a/522880623_120961824)
15. hankyung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12820851>)
16. 欧亚系统科学研究会 (<https://www.essra.org.cn/view-1000-2653.aspx>)